

---

# 해외견문체득훈련 결과보고서

---

2023. 11.

#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분야 해외전문체득훈련 결과보고

2023년도 해외전문체득훈련(일본 규슈, 2023. 11. 13. ~ 11. 17.)의 주요활동 및 성과를 보고합니다.

## □ 주요 활동 및 시사점

### 《 주요 성과 》

- 후쿠오카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견학
- 시설 운영관리 방법 및 시민 이용 편의시설 조성 등 적용 벤치마킹

### ○ 도시환경 조성 사례와 방향 습득

- 옛 것을 소중한 가치로 보존하여 관광지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 철새 서식 수경공원, 지붕위 정원 등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지역 랜드마크를 활용한 상품 제작 등 수익 창출

	모지코항 (유럽풍 옛건물과 현대적 건물)	고쿠라성 (강을 경계로 있는 고성과 쇼핑몰)
옛 건물과 현대식 건물의 이색 조화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오호리공원 수경공원 (철새서식) 	다자이후 텐만구(지붕위 정원) 

랜드마크 활용 지역 활성화	후쿠오카타워와 기념메달 등 상품화	하카타역 광장 크리스마스 마켓
		

- 시설운영관리 방법 및 편의시설 이용 등 발전 방향 모색
  - 깨끗하고 쾌적한 지하상가 운영관리 벤치마킹
  - 불법 주정차 방지 시설 등 교통안전과 원활한 흐름 확보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관리	텐진 지하상가 유럽풍 건축양식	가판대 없는 쾌적한 이동통로
		
불법주정차 방지	화물전용 무인주차기	불법주정차 방지 장비
		 *주차를 하면 방지턱이 올라오고 정산을 하면 방지턱이 내려가는 방식
시민이용 편의시설	승하차 배려 주차선	유료 자전거 주차장
		

## ○ 일본 시민 의식

-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는 습관으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불법주정차가 없는 사회, 질서정연하고 배려하는 문화는 배울 점  
으로 일본의 시민의식을 나타내는 말을 오아시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어릴 때부터 교육한다고 함

[ 오아시스 ]

(오)오하요우 고자이마쓰: 아침인사 안녕하세요

(아)아리가또 고자이마쓰: 감사합니다

(시)시즈레이 시마쓰: 실례합니다

(스)스미마센: 죄송합니다

## □ 향후 계획

-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사례 전파
- 역사와 전통 가치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 모색
-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운영관리 방안 적용

#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분야 해외전문체득훈련 세부 결과보고

## I 해외전문체득훈련 개요

방문국	일본		방문도시		규슈
훈련기간	2023. 11. 13.(월) ~ 11. 17.(금) / 4박5일				
훈련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견학</li> <li>○ 시설 운영관리 및 시민 이용 편의시설 조성 벤치마킹</li> </ul>				
훈련 참여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경영지원부	하지연	체육사업부	김경진	
	주차사업부	이종대	레포츠사업부	김미숙	
	주차사업부	서자순	레포츠사업부	곽경숙	
	주차사업부	이순자	레포츠사업부	최범진	
이동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철, 버스, 택시, 기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하며 일본의 생활시설과 시민문화를 밀접하게 체험할 수 있었음</li> </ul>				
					
					

## II

## 해외건문체특훈련 주요내용 및 시사점(활동소감 포함)

### 【 1일차 : 오호리공원, 텐진지하상가 】

#### ○ 오호리공원

- 후쿠오카 시내 중심에 위치한 일본 최대 규모의 호수공원으로 호수 중앙에는 3개의 섬과 4개의 다리(후쿠오카시 문화재)를 만들어 놓아 호수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으며, 천둥오리, 황새, 가마우지 등 여러 종류의 새가 서식하는 자연친화적인 수경공원으로 조성해 놓았음
- 봄에는 벚꽃놀이 명소, 여름에는 불꽃놀이 행사장으로 이용하고 미술관, 어린이놀이공원, 보트선착장, 낚시터, 자전거도로, 식당과 카페가 있어 지역주민들의 쉼터와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음
-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점도 인상 깊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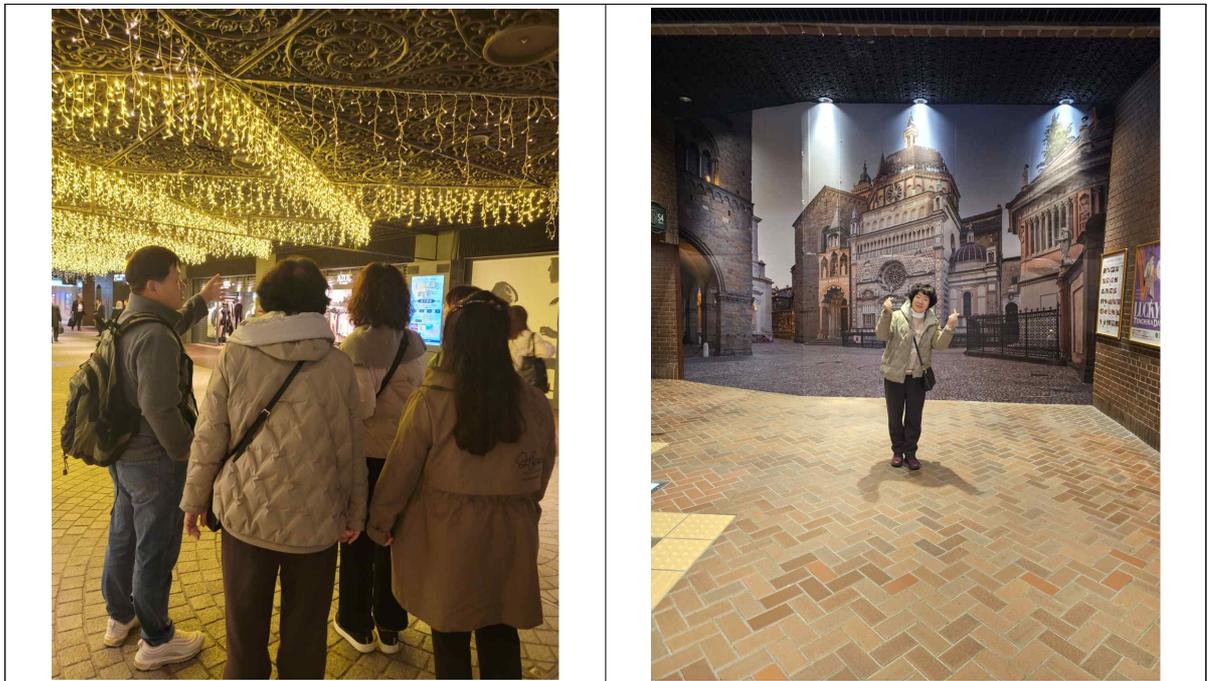


[ 활동소감 ]

- 김정진 : 공원 연못에는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걸쳐 수백마리 겨울 철새가 날아와서 그런지 방문 당시 청둥오리 등등 여러 철새들이 목격되었습니다. 호수지만 야자수 때문에 바닷가 느낌이 나고, 오호리공원 한바퀴를 돌 수 있는 길과 가운데 가로지를 수 있는데 우리조는 가운데 가로지르는 길을 선택하여 오호리 공원에 경치를 만끽할 수 있었고 한국에선 호수공원이 많아서 특별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지만 여유로운 산책을 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되고 한국 사람에게 유명한 이유는 공원 내 스타벅스가 있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주변 시설에 자전거 유료 주차장이 있었으며 한국과 달리 유료로 거치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 이종대 :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는 시민들이 많았고 보트하우스, 미술관, 스타벅스, 오호리테라스 등 간단히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카페가 있어서 편리하였습니다.
- 하지연 : 철새들이 자유롭게 물과 땅 위를 오가고 있을 정도로 조용하고 쾌적하게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오래된 식당과 현대적 스타벅스, 아이스크림 자판기 등이 이색적이었고 산책하며 휴식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 서자순 : 인근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었는데 유료라는 점이 우리나라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자전거랑 키보드가 무료이다 보니 도로 곳곳에 방치되어 있어 그걸 수거하는 인력과 비용 등 손실이 크니 유료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순자 : 호수에서 오리배를 타면서 구경도 할 수 있고 주변에 어린이 전용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오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 김미숙 : 공원 호수의 경치와 야생 조류를 바라보며 한가롭게 수상 산책을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 광경숙 : 주변에 지하철역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유료 자전거 주차장이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최범진 : 호수에 귀여운 오리들이 떠다니고 사람에게 대한 경계심 없어 가까이서 잘 볼 수 있었고 호수 가까이에 벤치가 많아 바라보며 쉬기 좋았습니다.

○ 텐진지하상가

- 규모 최대의 변화가인 텐진의 지하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전체 길이 약 590m의 지하상가로 패션, 맛집, 카페, 잡화점, 서적 등 150여개의 점포가 있음
- 19세기 유럽을 이미지화하여 만들었으며, 돌바닥과 당초 모양의 천장 등 고급스럽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해 우리나라 지하도상가와 다른 분위기였으며, 매장 앞 가판대와 입간판 등이 없어 이동통로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백화점과 쇼핑몰이 직결되어 있고 지하철과 버스센터까지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여 이동이 용이하여 이용자가 많았으며 무료 와이파이 등 편리한 환경이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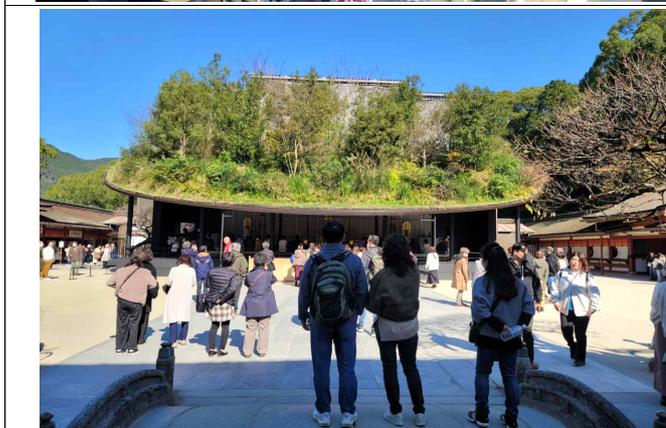
[ 활동소감 ]

- 김정진 : 한국 지하상가처럼 점포 앞에 매대가 나와 있지 않아 통행에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음료나 음식 먹는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아 깨끗하게 보였고, 우리나라도 배워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 이종대 : 19세기 유럽을 이미지화하여 만들었으며, 돌바닥과 당초 모양의 천장 등은 개업 초기부터 참신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그대로 연출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지하상가와는 다른 느낌을 주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교통편도 후쿠오카 시영 지하철 공항선과 나나쿠마선으로 연결되고 니시테츠 텐진역과 텐진미나미역과도 직결되고 니시테츠 텐진역과 니시테츠 텐진 버스센터로도 지하상가를 통해 연결되어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좋은 환경을 자랑하고 지하상가 내에서는 무료Wi-Fi를 이용할 수도 있어 편리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상가를 통하여 파르코 백화점, 다이마루 백화점, 미시코츠백화점, 솔라리아, 로프트 등 쇼핑몰과도 지하상가에서 직결 되어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하지연 : 지하상가가 백화점, 쇼핑몰,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구경거리가 많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되었으며, 고급스러운 천장과 바닥 무늬, 예쁜 등장식 등 우리나라 지하상가와는 다른 분위기여서 지하상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바뀌었으며, 이동통로가 깨끗하고 쾌적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서자순 : 텐진 지하상가에는 가판대가 하나도 밖으로 안 나와 있는 점이 인상깊었고 우리나라도 이런 점을 본받아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 이순자 : 지하상가가 예쁘게 구성되어 있어 곳곳이 포토존이었고 시설환경이 정말 좋았습니다.
- 김미숙 : 다양한 음식점, 서점, 드럭스토어, 옷가게 등이 있고 백화점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쇼핑과 식사를 하기 매우 좋은 곳이었습니다.
- 광경숙 : 곳곳에 전체 지도와 안내판이 잘 되어 있었고 분위기도 좋고 교통이 편리하여 지하상가도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범진 : 백화점,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어 편리하고 날씨와 상관없이 쇼핑과 식사를 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 【 2일차 : 다자이후 텐만구, 후쿠오카 타워 】

### ○ 다자이후 텐만구

- 919년 창건된 학문의 신을 모시고 있는 신사로 다자이후 역에서 내리면 바로 다자이후텐만구로 가는 참배길이 이어지며, 길 양 옆으로 기념품 가게와 상점들이 자리하고 우메가에모치라는 떡을 먹으면 병마를 물리치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함
- 경내에는 스가와라가 교토에서 좌천되어 이 땅에 왔을 때 교토에서 날라 왔다는 매화나무 외 196종 6,000그루 정도의 매화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매화의 명소로도 유명하며 본전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 다자이후 텐만구로 가는 길에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못이나 철 사용 없이 나무의 흠을 맞춰 끼운 목재 짜임 구조로 이루어진 전통과 현대의 융합이라는 스타벅스가 유명하며, 텐만구 내 지붕위에 있는 나무 정원도 인상 깊었음



○ 후쿠오카 타워

- 후쿠오카 타워는 234m로 후쿠오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일본에서 가장 높은 해안가 타워로 1988년 후쿠오카 시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짐
- 후쿠오카 서쪽 해안의 멋진 스카이라인을 연출, 8천장의 유리 거울로 만들어져 날씨와 하늘색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변하는 매력이 있으며, 밤에는 타워 전체에 조명을 밝혀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고 계절별로 다른 라이트업이 이색적임
- 전망실에 마련된 꽃으로 장식된 하트 모양 조형물에 연인이 함께 손을 대면 사랑을 축복하는 종이 울리고 사랑의 열쇠를 거는 등 소소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고 기념메달 제작도 가능함 (메달 디자인 선택, 날짜와 이름 각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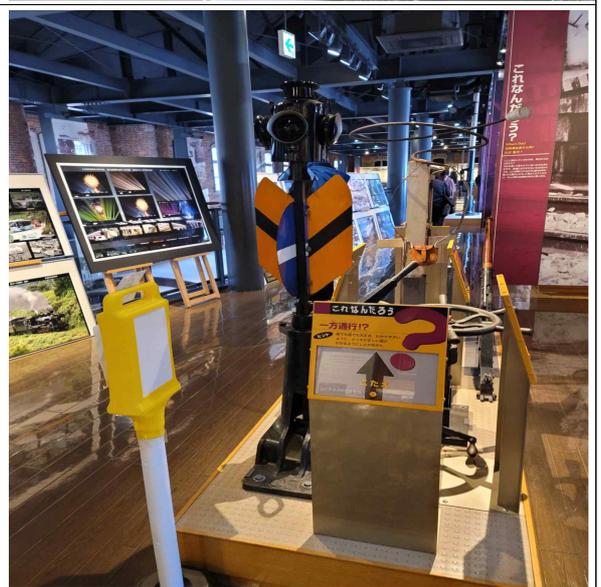
[ 활동소감 ]

- 김경진 : 진정한 일본에 감성, 일본 특유에 아기자기한 건축물 역사가 느껴지는 신사였습니다. 신사로 향하는곳 상가 길목에 스타벅스가 있어 좀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며, 자연과 역사를 느끼고 오래된 나무들도 많아 오래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절과 같은 곳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후쿠오카 타워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시내 야경이 일품이었고 안에서보다 밖에서 바라볼 때 더 화려해 괜히 랜드마크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 이종대 : 다자이후 텐만구 가는 길에 있는 나무를 이용해 전통과 현대의 융합과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주는 스타벅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 하지연 : 다자이후 텐만구에서 지붕위에 나무와 풀이 자라 정원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인상적이고 독특하였고, 후쿠오카 타워에서 보는 야경이 정말 멋졌습니다. 해안가라는 도시의 특성을 살려 관광지과 랜드마크로 만든 점은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서자순 : 다자이후 텐만구의 모치떡, 후쿠오카 타워의 기념메달 등 관광지를 대표하는 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순자 : 일본 신사 특유의 분위기와 호수를 건너는 돌다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여 뒤를 돌아보면 안된다는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 김미숙 : 후쿠오카 타워에서 바라보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고 직접 메달을 만들어 보았는데 날짜와 이름을 각인할 수 있어서 기념으로 간직하기 좋았습니다.
- 곽경숙 : 다자이후 텐만구를 방문하였을 때 자동차가 지나가자 사람들이 양쪽으로 멈춰서서 길을 비켜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가 있어 안전을 위해 이런 부분은 우리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범진 : 랜드마크인 후쿠오카 타워의 야경이 아름답고 좋았지만 실내에 전망대만 있는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 [3일차]

#### ○ 규슈철도박물관

- 일본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의 철도박물관으로 역의 플랫폼 같은 전시장에는 규슈에서 활약했던 유명 차량 9대가 늘어져 있어 실물 크기와 박력감, 조형미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 철도박물관에는 유명 열차의 헤드마크, 유니폼, 기차표, 철도부품 등 철도 역사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전시되어 있음
- 미니철도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전동차 안에서 직접 운전기기를 조작해 볼 수 있으며, 130m의 한 바퀴를 어린이가 스스로 운전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음



[ 활동소감 ]

- 김경진 : 1800년대 만들어진 박물관이라고 하던데 전혀 현대식에 밀리지 않는 건축물이었고 안에는 규슈 철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장이 펼쳐져 있고 예전에 사용되었던 마크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열차 회사의 변천사를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이종대 : 이곳 기념관에는 메이지 21년 규슈 최초의 철도 회사인 "큐슈 철도 회사" 가 규슈지역에서 운행했었던 실물차량 8대가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있어서 당시의 기차를 이해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미니철도공원의 복선, 신호기등을 갖춘 설비로 실물 기차와 같은 운전 체험을 할수 있게 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래전 이용했던 기차, 화물차등을 전시하여 호기심 많은 어린이부터 향수를 느끼러 오는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보고 느낄수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하지연 : 철도박물관에 방문하였을 때 유치원 어린이들이 단체 견학을 와서 즐겁게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공사가 운영하는 어린이교통나라가 떠올랐습니다. 변천사를 알 수 있도록 기차표, 열차마크, 유니폼 등 실생활과 밀접하여 흥미를 느낄수 있는 예전 자료들을 전시해 놓았기에 우리 공사도 그런 변천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시관도 있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서자순 : 철도 기념품 숍과 명치시대의 객차와 인형을 배치해 당시 상황을 재현해 놓았고 기차 운전 시뮬레이션과 규슈지역의 철도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전시되어 당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이순자 : 규슈철도기념관은 1891년부터 이어져온 철도사업의 발전과 각종 기차들의 실제모습 등 그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고 규슈지역 철도의 출발지로서 실제 철길을 달렸던 기차들을 전시해 놓은 코너가 인상 깊었습니다.
- 김미숙 : 과거 사용한 실제 차량과 운전실을 전시하고 있어 인상적이었으며, 체험공간이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광경숙 : 은하철도 999의 모델이 된 열차가 있어 흥미로웠고 열차 안을 직접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최범진 : 철도의 변천사와 다양한 엠블럼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기차를 좋아하는 어린이는 물론 어른도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 모지코항

- 19세기 말부터 국제무역항으로 변영했던 모지코항은 현재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 초기에 걸쳐 만들어진 유서 깊은 건물이 남아 있으며, 블루윙모지는 199년 만들어진 보행자 전용 다리로, 배가 통행할 수 있도록 도개교로 지어졌으며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배경과 사진 촬영하기 좋은 명소 등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음
- 모지코 레트로는 옛 건축물들을 볼 수 있는 유명 관광지구로 현대식 건물인 모지코 레트로 전망대와 유럽풍 건축물인 다렌 우호 기념관 등 이국적인 건축물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지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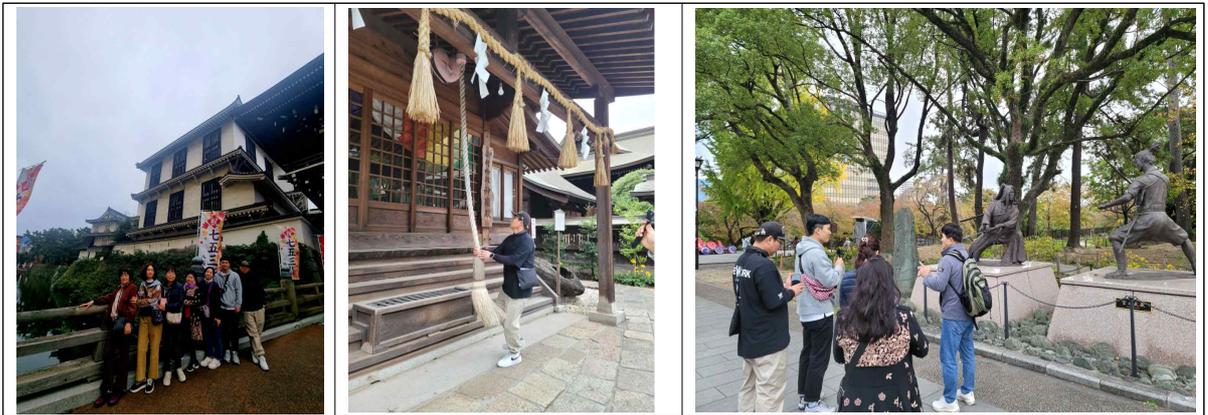
[ 활동소감 ]

- 김정진 : 개화기때 생겨난 레트로풍 양식의 건물들이 잘 보존되고 있는 작은 시골 향구이며, 예전엔 고배, 요코하마와 더불어 일본의 3대 무역항이기도 합니다. 옛 것을 보존을 잘하는 부분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대 : 레트로한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건물이 많아 이색적이었고, 우리나라도 옛 건물을 철거하기보다 주변과 잘 어우러지도록 보존하는 방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연 : 운 좋게 다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걸어가고 다리를 건널 수 있어 이색적이었습니다. 향구인 만큼 큰 수산시장이 있어서 관광과 먹거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천도 지역 역사를 살려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지를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자순 : 블루윙 모지 다리가 열렸다가 닫히는 순간에 손을 잡고 다리를 건너면 평생을 함께한다는 속설이 있어 연인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색적인 건물들이 많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 이순자 : 이색적인 건물들이 많아 구경하며 사진 찍기도 좋고 현대식 건물과 옛 건물이 어우러져 있어 이 모습 그대로 관광지로 발전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 김미숙 : 외국 무역으로 번성했던 시대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레트로풍으로 정비해 대표 관광명소가 되었다고 하니
- 광경숙 : 중국과의 교류를 기념하여 만든 유럽풍으로 지어진 대련우호기념관이 바로 뒤 현대식 건물과 비교되어 화려하고 눈에 띄었습니다.
- 최범진 : 세관청사로 사용되던 옛 건물은 갤러리와 카페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옛 건물의 외양은 살려 보존하고 지금에 맞게 이용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 【4일차】

### ○ 코쿠라성

- 1602년에 세워진 고쿠라성은 복원되어 기타큐슈시의 상징처럼 된 성으로 상점, 식당,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갖춘 복합상업단지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고 무라사키강을 따라 펼쳐진 경치가 아름답음
- 성 내부에는 고쿠라 시의 발전 과정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성 위층에는 고쿠라 시내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가 있음



### ○ 하카타역

- 하카타역 주변은 광장 전체가 예쁜 일루미네이션으로 장식되어 있고 지금 시기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어 공연도 즐기고 음식 잡화 판매 등 역 광장을 잘 이용하는 점이 인상 깊었음
- 주변 상점에 화물차 전용 주차선과 무인 정산기가 있는 점이 특이하였으며, 상점 앞에 불법주정차가 없고 화물차도 불법주정차 없이 무인정산기로 주차료를 낸다는 점이 인상깊었음



- 김경진 : 고쿠라성은 지역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축조는 에도 시대(1603~1867)이던 1602년 시작했으며, 완성까지는 약 7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성은 1632~1866년까지 오가사와라 가문의 소유였으나, 1866년 고쿠라 가문과 조슈 가문의 전란 중 화재로 무너졌으며, 검술가이자 예술가였던 미야모토 무사시가 머무른 곳으로 유명합니다. 공원에는 무사시의 기념물이 세워져 있고 주변에는 NHK코쿠라 방송국 건물이 보이고 개국 60년이라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 이종대 : 고쿠라성 천수각의 특징은 4층과 5층 사이에 지붕이 없고 5층이 4층보다 면적이 크다고 하고 성벽이 높고 무라사키 강을 끼고 있어서 경관이 멋졌으며, 화물전용 무인 주차정산기도 인상깊었습니다.
- 하지연 : 옛 건물인 고쿠라성과 현대식 복합 쇼핑몰이 마주보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으며, 강을 따라 펼쳐진 경관도 아름다웠습니다. 고쿠라시 60주년 기념물이 많이 보이고 홍보하고 있어서 우리 부천시도 시 승격 50주년 홍보와 비교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1963년 고쿠라시와 다른 시가 합쳐지면서 현재의 기타큐슈가 되었다고 하는데 근대화부터 일본에 제일 큰 제철소가 있어 대표적인 공업도시였으며 그로 인해 환경문제도 심각했는데 지금은 도시 정화가 잘 되어서 일본의 대표적인 환경도시로 꼽힌다고 합니다.
- 서자순 : 화물트럭 주차하는 곳에 분당 계산하는 계산기가 부착되어 있어 특이하였고 우리 공사도 노상 또는 노외에 대형차 뒤에 작은 무인기를 설치하면 인건비와 시설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순자 : 고쿠라성 주변에는 산책할 수 있는 정원과 나무가 많은 조용한 공간인데 반해 바로 맞은 편에는 쇼핑몰이 자리하고 있어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김미숙 : 고쿠라성은 단순했던 원래의 성 재건에 충실하기보다 심미적이고 매력적인 형상을 바꿔지었다고 하며 현대적인 멋이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 광경숙 : 고쿠라성 방문 시 상가쪽이 정말 깨끗했는데 일본분이 웃으면서 빗자루로 쓸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깨끗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최범진 : 성 주변 공원이 너무 깨끗하였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자신의 쓰레기를 가져가는 문화와 시민의식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